

제125호

발행일: 서기 2014년 10월 15일
창간일: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02) 2244-3717
070-8807-1073
F A X: (02) 2243-1073
E-mail: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 봉 회
편집인: 김 상 근
인쇄인: 김 원 회
발행처: 안동 김씨 대종회
서울시 종로구 영무로 131
(회경동 112-49)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c.kr

先祖님의 享祀에 많은 參祭를 부탁드립니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입니다.
종친 여러분께 건승(健勝)을 기원(祈願)합니다.
2014 갑오년 선조님들에게 시제(時祭)를 올리는 향(享)이 돌아왔습니다.
일년내내 절실히 일하여 수확한 농산물과 새로 빛은 제수(祭物)를 마련하여 선조님께 제일 먼저 올리는 순조의 제례문화(祭禮文化)는 우리 민족의 최대 유산이며 자손 만대까지 전수(傳授)해야 할 큰 행사입니다.
옛날에는 어린 손자들을 모든 후손이 참석하여 조상님을 기리고 애절을 배우고 종친 간 본복의 정을 나누는 문중행사였는데 농경사회가 와해되고 도시문화(都市文化)로의 세태(世態)가 급변하여 노인들만 참석하는 경로 행사로 바뀐 안타까운 현실을 한탄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일이며 선조님 없이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 앞에는 한 번 올리는 제의(祭儀)에 꼭 참석하십시오.
선조님의 묘소를 살펴보고 문중 어른께 인사 올리고 종친 간 본복의 정을

을 마련하십시오.

대행이 우리는 1979년 기묘보를 간행한 후 35년만에 새로이 대등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종친님들께서 수단(收單)에 참여해 주셔서 자료를 정리 검토하고 간행 업무에 착각을 가(加)하고 있습니다.

선조님의 위업을 따지기에 살기 위하여 구보수군(己未諸善君)을 원역하는 일과 영정, 묘소, 비각, 제실, 교서, 교지 등 선조님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사전에 담아 책보에 올리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졸속을 피하고 오류 없는 훌륭한 대등보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촉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9월 달일이 예년에 비해 시제일이 한 달 늦어지므로 날씨가 춥지 않음에 격정스럽습니다. 11월 29 ~ 30일 총령군 상계6대조 제향 및 총령공고비위(忠烈公考妣位) 세일사는 철저한 준비와 행사계획을 세워 실수 없는 행사를 봉행(奉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종친 여러분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鳳倉 拜上

2014年 先祖 秋季享祀 일정표

향 사	향 사 일	장 소	비 고
1 忠烈公(諱 方慶)之墓	음 10. 9 (양 11. 30. 일)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농동)	(02)2244-3717 (대종회), (054)855-2688 (제실-봉회)
2 冷平翁夫人竹林氏之墓	음 10. 9 (양 11. 30. 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0	(02)2244-3717 (대종회), (054)853-0641 (제실-봉회)
3 文美公(諱 梅)之墓	음 10. 7 (양 11. 28. 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329-1	(031)424-5292 (제실-제향)
4 南道公(諱 祥仁)之墓	11월(양) 첫째 일요일 (양 11. 2. 일)	경기도 포천시 양동면 사직리 237-2	010-3218-5556 (제향-회향)
5 明誠尹公(諱 七賢)之墓	10월(양) 둘째일요일(11.00 (양 10. 12. 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1	010-5215-6752 (이향-회향)
6 寧令公(諱 政)之墓	음 10월 初丁日 (양 11. 22. 토)	충남 연기군 장평면 마곡리 406-1 (학당부리)	011-422-8880 (송화-회향)
7 顯慶公(諱 天順)之墓	음 10. 16 (양 12. 7. 일)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010-2743-1855 (원호-회향)
8 文淵公(諱 承澤)之墓	10월(양) 셋째 일요일(양 10. 19. 일)	경기도 포천시 참수면 오거리 557 (금수정)	010-3363-0543 (영환-회향)
9 安祥公(諱 九德)之墓	음 10월 첫째 일요일 (양 11. 23. 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44	010-8812-1763 (송기-회향)
10 都兩公(諱 九萬)之墓	음 10월 셋째 일요일 11.30 (양 11. 2. 일 11. 16)	경북 의성군 장곡면 장곡리 (사촌 종택)	010-6663-7088 (재향-회향)
11 文淵公(諱 承載)之墓	음 10. 6 (양 11. 27. 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성면 장산리 70-1	011-487-3551 (대욱-회향)
12 領三司公(諱 謙)之墓	음 10. 5 (양 11. 26. 수)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잠리 167	010-3482-3158 (태관-회향)
13 南正公(諱 士衡)之墓	음 10. 6 (양 11. 27. 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독원리 214-2	(02)836-5631, 010-9189-4078 (민갑-사무국장)
14 寧令公(諱 義)之墓	음 10. 1 (양 11. 22. 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42-5	(02)848-1750, 010-5760-6398 (규은-사무국장)
15 正義公(諱 哲)之墓	음 10. 8 (양 11. 29. 토)	경북 안동시 임동면 풍림리 431	010-3752-5408 (원식-회향)

안동총령군 향사
찾아오시는길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3

① 동가-영주-지내삼거리-농동-총령군묘소(30km)
② 영동-관동동-영동동-김제-김동소-구송동-산도비-농동(총령군 묘소(25km))
③ 영동-사신리-구송동-농동-총령군 묘소(17km)
④ 영동-송원동-구작곡-계림-회곡리 주주비 묘소(12km)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6

공고 忠烈公上系6代祖 祭享 및 忠烈公考妣位 歲一祀奉行

安東金氏 大宗會는 忠烈公上系6代祖 祭享 및 忠烈公考妣位 歲一祀奉行을 다음과 같이 행하기오니 後諸 여러분들의 參祭를 바랍니다.

- *행사일명 및 본절회의
 - 일시 : 2014. 11. 29(토) 음10월 초8일甲辰 오후7:00
 - 장소 : 음수재
- *총령군상계6대조 제향
 - 일시 : 2014. 11. 29(토) 음10월 초8일甲辰 오후9:00
 - 장소 : 음수재
- *총령군 세일사
 - 일시 : 2014. 11. 30(일) 음10월 초9일乙巳 오전11:00
 - 장소 : 총령군묘소
- *냉평군대부인죽주비세 세일사
 - 일시 : 2014. 11. 30(일) 음10월 초9일乙巳 오후2:00
 - 장소 : 회곡 당포

석사시간 : 11월29일 오후5:00~7:00 제석식 * 11월30일 오전9:00 예행식 * 11월30일 오전11:30 협심식

翼元公 [諱士衡] 第607週忌 不祧廟 祭享 奉行



익원공[諱士衡] 不祧廟 享祀가 2014년 8월 29일 (을 7. 29) 고창군 공음면 익원리 도암사원 내 不祧廟에서 100여 직손과 방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제향을 봉행하였습니다.

석학 파공회장님, 선회 명예회장님, 대종회에서 참석하신 봉회 대종회장님, 상근 사무총장님, 문운공과 열한 파공회장님을 비롯 문운공과 종친님, 제막공과 수도관공회장 대신님 안림사공과수도관공회장 춘식회장님과 안림사공과 종친여러분, 도령의공과 종손님과 도령의공과 종친님 등 방손과 전국에서 참석하신 직계 후손들은 먼저 부조도, 도암사, 영모담에 참배를 한 후 준비된 점심 식사를 끝내고 1시 30분부터 향사를 봉행하였습니다.

2시부터 제향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을 우려하여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관은 제복(祭服)으로 참사자들은 모두 유건을 착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추모의 제례를 올리고 선조들의 훌륭한 위업을 본 받기를 다짐하며 엄숙히 예를 올렸습니다. 예년과 달리 도령의공과 형회 방손계 제문(祭文)을 작성하여 도령의공과 종손님이 축축하니 제향의 예가 더욱 높았습니니다.

제례가 끝난 후 석학 파공회장님의 인사와 대종회장 봉회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집례 재영님의 참사자 소개, 기관별들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사를 모두 마치고 잔소를 이용하여 명진장한잔이식당에서 석학 파공회장님이 제공한 식사를 하고 서울에서 참석한 참사자들은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별초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11시가 넘어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분정

*초전 [紹顯] *이현 [義顯] *종현 [宗顯] *집례 [在禮] *대속 [陪屬]
*재주 [在周] *봉로 [奉老] *봉각 [奉客] *진인 [鎭人]



2014년 崇義殿 秋季大祭 參祀記



2014년도 崇義殿 秋季大祭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번지 승의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연천군과 개성원씨중앙동회 (사)승의전보존회가 주관한 승의전추계대제는 2014. 9. 5.(일) 오전 11시부터 정경에서 오신 참사자와 현관 및 분관관, 제관이 엄숙히 제례를 봉행하여 초현관 김규선 연천군수의 헌작과 고려왕실 의례 출가에 따라 제례관이 연주되는 가운데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장님과 사무총장, 정남종친회원 25명

안림사공과수도관공회장을 여러 종친 어르신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제례를 올렸습니다.

본원관에 대종회사이이며 정남종친회장이신 권교남이 총괄공 선조님께 獻辭하였습니다. 승의전 추계대제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회상 정남종친회의 대형 잔세버스와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순대왕릉과大安君 殿設선조님 설단에 참배를 하였습니다. 귀가 길에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을 관람하였습니다.



「기사제공 -사무총장-」



안동김씨대중회 제6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

- 문중행렬 화합상 수상 -



2014.9.26(금) 11:00 '제6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뿌리공원 만성교 입구에서 전국 124개 문중이 참여한 가운데 '문중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국내 유일의 성씨를 테마로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조상의 얼굴을 보고 느끼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우리 전통의 효를 체험하는 축제다.

박용갑 대전시 중구청장과 문재광 중구의회가 입구에 도열하여 개막식에 입장하는 124 문중을 직접 맞이하고 환영하였으며 각 문중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문중별 대표 인물로 분장해 취타대와 함께 입장하였다. 안동김씨대중회는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120여명의 문중 어른들께서 참석하여 안동김씨 현수막을 필두로 우리문중의 역사적 대표위원 [고려 도원수 충렬공 김방경,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장군], [요동백 충무공 김을하장군], [여래의 큰 스승 김구선생]의 깃발을 앞세우고 재호(문문공파)님이 기증해 주신 모자를 쓰고 안동김씨의 로고 깃발을 흔들며 입장하였다.

문중 퍼레이드 경연 심사결과 120여 참가 문중에서 우리 안동김씨가 화합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안동김씨 조형물을 찾아 살펴보고 대종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체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 족보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관에 소장 중인 안동김씨 경진보와 많은 고문서, 족보들을



을 살펴보았다. 점심식사는 뿌리공원입구에 있는 <장수부부촌> 한식당에서 버섯전골메뉴로 주부와 같이 하였으며 서울에서 참석한 32명은 귀경길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서운관정공과 문종묘소와 하난설현 할머니 묘소(경기도 지방문화재 제90호)를 참배하고 서운관정공과 종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하고 지하철 사당역근처에 도착, 휴식·귀가하였다.



제6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 참석자 현황

- *괴산풍천회15명 *논산풍천회11명 *대전풍천회10명 *아산풍천회4명
- *부여풍천회14명 *보성 대호공문공회 4명
- *수도권지역 - 대종회장, 사두총장, 군사공과2명, 도평의공과4명, 문문공과2명, 서운관정공과6명, 안림사공과9명, 인천풍천회11명, 익원공과2명, 전서공2명, 재학공과수도관공과6명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460주년 기념행사



2014. 9. 23(화) 오전 10:00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460주년 기념행사가 천안시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육군 제6호병사단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하여 개최한 행사가 환국환향 기념사업회 회장, 양승조 국회의원과 여러 단체의 귀빈들이 참석하고 안동김씨대종회 명예회장 남윤남, 대종회장 봉화님과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천안지역 종중 원로님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밖에 천안지역 유지님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김시민 장군 흉보영상발상영, 은소리국악단의 경기민요 공연으로 충무

공 김시민 장군의 탄신을 경축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외례, 내빈소개에 이어 김시민장군 일대기 낭독 김시민 장군에게 드리는 헌시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축하 기념사의 말씀과 안동김씨대종회장 봉화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기념사업회 활동 경과보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치고 독립기념관 경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을 경축합니다.



忠武公金時敏將軍 誕辰 460週年 紀念 격려사(激勵辭)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충무공 김시민 장군 후손과 사관법임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환국환향 회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탄신 460주년을 맞이하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님을 기리는 존경과 위업을 추앙(推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곳 충양의 고장 천안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태어나시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인재를 쌓고 무예를 연마하였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기 독립기념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병헌면 가정리 백정은 우리 안동김씨 백정문중의 세거지(世居地)로 이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지(生家地)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정의와 국외의장님과 천안시장님 국외의원님 및 귀빈들을 모시고 유여지(遺墟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생가 복원 계획을 자세히 설명받은 바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께서는 진주성 대첩에서 3800여 명의 군사와 3만여 명의 해병을 맞아 2만여명을 사살하신 큰 전공을 세우신 명장이십니다.

오직 무구충정의 일념과 탁월한 전략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순국하신 무절한 사명감과 불굴의 신념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를 본받고 발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의 영토권 주장을 넘어 역사 교과서 왜곡과 총리의 신사 참배 논란 등 침략 역사를 반성하기 보다는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일수록 우리는 장군님의 무구충정 정신을 받들어 귀감으로 삼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충무공 김시민 장군 460주년 탄신일을 맞아 송고한 국난 극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혜로운 삶에 활력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생가지 복원 사업이 완공되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훌륭한 역사 탐방의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행사 준비를 해주신 충무공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9. 23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봉화

安東金氏提學公派 竹溪公宗會

- 崇祖敦睦 禮節 實踐 한미당 行事 盛了 -

2014. 7. 17(일) 11:00-16:00 죽계공공회 송조돈목 예절 실천 한미당 행사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리 99번지 竹溪公宗會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문명공공회장, 영목님, 생원공공회장, 정응남, 부평공공회장, 규철님, 대종회부서권 관찬위 간사 윤한님 등 회원과 죽계공 후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식순에 따라 개최되어 오후 4시에 종료되었다.

서술 참석자 편의를 위하여 전세버스가 사당역에서 죽계사까지 운송되었으며 개별 참석자들은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일찍이 행사 현지에 도착하여 죽계공 묘소 및 송석묘원에 참배를 하고 오전 11시에 행사를 시작하여 국민외례, 참석자 소개, 상근 죽계공공회장 인사말씀과 재학공과 수도관공회장 태산님 문명공공회장 영목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상봉 죽계공공회 총무가 종무보고를 죽계공 행장조계와 선

조님 위업 소개 등 유인물 책 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외주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순서로 질문과 기타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날씨가 흐리고 기온비가 촉촉히 내려 더위가 꺾여 시원한 죽계사 실내에서 엄숙히 진행 된 행사를 통해 선조님의 위업을 되새기며 종친 간 상호 돈독의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행사 일정에 급년도 죽계사 시제 일자를 11월 22일(토)로 변경하여 유리도록 결정하고 기타 종무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고 행사를 종료하였다.



위패(位牌)란 무엇인가?

위패(位牌): 죽은 사람의 위(位)를 모시는 나무 패.
신주(神主) 또는 목주(木主)라고도 한다. 주로 밤나무를 깎아 만들어 본신(本身)의 규격은 높이 1자(尺) 2치(寸) 1리(厘) 3치, 두께 1치 2분(分)이며, 머리 부분의 5치 정도를 깎아서 둥글게 만든다. 앞면은 분(粉)가루에 아교를 섞어 발라 회계 만들어 이것을 분면(粉面)이라 하고, 뒷면은 한가운데 길이 8치, 너비 1치 정도를 4촌 길이로 파서 이것을 함중(陷中)이라고 한다. 받침은 사방 4치에, 두께를 1치 2분으로 하고 위에 홈을 파서 신주를 세워 받친다. 그리고 독(함)과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안에 넣는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붓으로 써서 작성하는데, 이것을 제주(題主: 신주를 쓴다)라고 한다. 신주는 받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연(筵)에 모셨다가 3년상을 마친 뒤에 사당(祠堂)에 봉안한다. 가묘(家廟) 이외의 단(壇)·묘(廟)·서원 같은 곳에도 패를 봉안하는데, 예를 들면 사적단(社稷壇)에는 사신(社神)과 직신(稷神), 공자묘에는 공자를 비롯

한 많은 성현을, 각 서원에겐 명신(名臣)·의사(義士)의 위패를 봉안한다.
筆蹟의 境遇
필자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약식으로 사당대신 다용도실에 제연을 설치하고 5대조까지의 신주를 모셔 봉안하고 기제와 차례에는 신주를 모셔 제를 올립니다. 이번 필자(相撰)의 증조부 신주를 사당으로 담아 공개합니다. 참고로 신주에 기록된 관직(官職)은 조선 후기 관제에 의한 1895년 의정부 상관관 직제인 관직입니다. 증조부님의 享年을 계산하면 88년전에 제주(題主)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보요양-

父繼煥 長子 仁修(인수) 忠烈公(정열) 一名 用夏, 字 聖明 一八五二 甲子年 辛亥 三月二十四日生 一九二六 庚戌十七年 丙申卒 壽七五 官 成均館 直員 配 南陽洪氏 一八九三 癸丑年 一九二五 己丑 十二月二十八日卒 壽七二 父 洪口永 祖 洪漢烈 曾祖 通政 洪相韓 外祖 領議政官諱 孫 石潭 劉山 乾泰附 有來石 墓碑



神主正面



神主銘中



神主銘中



神主銘中



神主銘中

중종 재실에서 신주를 모셔놓고 시제를 봉향함이 제례에 맞는 것인지는?

질의 작성자 : 삼근 작성일 : 2013년 02월 21일

「문」 4대봉사가 끝나면 신주를 묘소 앞에 조매(遷埋)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종중 재실을 산속하여 선조님들의 신주를 새로이 만들어 재실에서 시제를 봉향하는 것이 제례의 법도에 맞는 것인지는요? 불천지위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답」 삼근과 정례원 답변

아래 말씀을 종합하면 그 후손으로는 현손(玄孫)이 다하면 친친(親親)이라 하여 그 신주(神主)를 묘(墓)에 묻고 그 묘에서 새임제(歲一祭)를 행하게 되는데, 만약 선산(先山)에 여러 위(位)의 묘(墓)가 있어 하부에 지내지 못한다면 우천사를 대비하여 그 선산 아래에 제사(齋舍)를 세우고 그곳에서 집에서 지내는 사시제(四時祭) 법도와 같이 합설로 제방(紙榜)을 써 세우고 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魂)과 백(魄:肉身)이 분리됨을 이르는데 혼(魂)은 신주(神主)로 모시고 집에서 친친(親親)이 될 때까지 제사를 지내다 그 신주를 땅에 묻고 산주제를 영원히 폐하고, 백(魄)은 산에 장사(葬)하고 그 묘에서 제사 지내드리게 되는데 친친이 되어도 묘제를 폐하지 않고 백세(百世)도록 불변 영원히 묘제는 지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주제(神主祭)를 사당이나 정침(正寢)이 아닌 곳에서 제사할 수 없고 백제(齋祭)인 묘제(墓祭)는 그 묘(墓)이거나 그 산하(山下) 제사(齋舍)가 아닌 곳에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性理大全 禮議條祭二世以下祖廟書及小宗之家有祖廟則置其主而理之其墓則置立遷學而歲事其子孫一祭之
- 朱子曰古者不墓祭非有所忌也蓋知陽神神制不可以遷祭也神主在新而墓以歲歲歲遷之歲而祭也
- 蔡氏曰世俗之行墓祀於神主者亦未安是神主祭也非墳墓祭也
- 通典神道篇將不可遷墓宜於墓前山門之外設齋房爲位遷祭若一墓數墓每墓各設位於廟前別列祀焉
- 禮義三司原許多墓各行祭之類世多有此意愚不如歸墓後以紙榜合祭於齋舍
- 或問墓祭或或理葬主應被遷往來遷徙恐有侵擾之氣而日亦不繼或或日終葬則則所可爲之類揚一屬於墓則 若遇如此時依時祭禮合祭一所如何應遷三牌

答稱 成均館 典禮司 卓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김씨 인천광역시종친회 월례회의 개최

2014. 8. 29(금) 18:30 안동김씨 인천광역시종친회 월례회의가 주안 제주특근대 음식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종회장은 관목(按)남 재호(文男) 등 내빈과 인천종친회 종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덕 총무부의 진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참석자를 소개하고 춘교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증부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종의 사무총장의 대동부 간행 현재 진행 상황과 인터넷 복보 구축



에 대한 설명 및 수단 입력 후 교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종친들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회의의 안건으로는 인천종친회 회원 친목을 위한 바다낚시 행사 일정을 갖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집행부에 의뢰하여 실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하며 회원 간 친목의 시간으로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註: 2014. 9. 26(금) 대전 뿌리공민효문화축제 참석후 귀경길에 허난설한학암니 묘소가 있는 서문관정공과 하당공(荷塘公)계 문종묘소를 참배하였습니다.

묘역 내에는 南平公 諱弘度考3世位, 荷塘公 諱瞻考世位, 西堂公 諱

誠立考龔位, 老總公 諱正立考龔位, 西堂公配位인 蘭雪軒(許楚姬)墓와
투자녀 墓가 모셔져 있습니다.

묘역 좌측에 위치한 광주재실 모선재가 장엄하게 우뚝서 묘역을 지키고 서있는 명달 묘역은 경기도문화재묘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許蘭雪軒 墓(허난설헌의 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났으며, 8살 때 관한전백옥루상탈문을 지어서 신동으로 일컬어졌다.

15세에 김성립과 결혼하였는데 친정집에 육사가 있는 등 연속되는 불운에서 오는 고뇌를 시를 쓰며 달래다가 선조 22년(1589) 27세에 생을 마쳤다.

그녀는 섬세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성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작품의 일부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난설한집』으로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다. 허난설헌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문인석을 제외한 묘비·장명등(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삼석·망주석·분례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순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가 서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헌의 곡자시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투덜이 난설헌묘 좌측 정면에 나란히 있다.



- 품 목: 경기도 기념물 제90호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일: 1986. 09. 07
- 소 재 지: 경기 관주시 초월면 지월리 산29-5

許蘭雪軒의 詩

四時(사계절을 음음) - 허난설헌

1. 春(昔)

고양(高陽) 高陽(고양) (원탁집정행하우)
고요하고 깊은 정원에 살구꽃은 비처럼 지고
流霞酒在辛卯(류하주재신묘) (유형제지신묘)
피로되는 목욕탕 편 언덕에서 지저귀네,
流霞酒在辛卯(류하주재신묘) (유형제지신묘)
술이 담긴 비단 휘장 안에는 아직도 찬 봄기
운이 스며들고
博山爐藏香一簾(박산로장향일립)
향기 향로에서 향내음이 하늘까지 누누나,
美人睡夢新香(미인수림신향) (미인수림신향)
미인은 잠에서 깨어 골짜기 단향하고
香羅窗掩曉氈袍(향로창완효탄포)
고운 비단 옷에 원앙새 새긴 패물을 찾아네,
斜街市面錦羅紗(사갈면면경로사) (사갈면면경로사)
새벽에 걸매를 찾아 비스듬히 잔이 돌리고
懶把紗裙對鳳凰(미과은병룡鳳凰)
은 거문고 잡고 금슬이 봉황을 하네구나,
金和聲按金拍(금과은합금타) (금과은합금타)
황금 굴레가 막힌 안장 엮고 넘겨선 어디로
가셨나니.

2. 夏(여름)

해운대(海雲臺) (호운지(호운지)회유막)
회화나무 그는 밑에서 꼭 그름자는 옹고
主筆 筆未就天(주필은상한주작)
광산에 대지리 깔고 앉으니 고운 누각이 사
임하게 보이네.
白亭衣雲下(백적의상한하루)
하얀 옷이 처마 저고리엔 구름 같은 맘이 맺
히고
呼風應律掃羅羅(호풍라선로라막)
비단부에서 나오는 바람이 비단 휘장을 흔
든다.
瘴雨朝暈石榴紅(오계개전선취화)
물결치면 선취화가 활짝 피었고
日轉華簾影彩斜(일전화렴영사)
처마 밑의 햇빛을 받아 발에 비스듬히 그늘
이 지네.
雕梁畫水落紅嬌(조량수영영인후)
수리한 물보에선 하루 종일 재비가 새끼를
돌보고
藥籠無人蜂蝶尋(약당무인봉보아)
약초밭 몰타리엔 사람이 없고 벌이나 황蜂대
는꾸나

3. 秋(가을)

부유에 찬바람 스며들고 아직도 밤은 한참
남았는데
庭下虛庭玉宇清(토하허정유우청)
달빛 오동잎에 이슬이 내리니 옥봉봉이 더욱
차가워라,
池荷初綠敗有香(지하분비유향)
연못은 시들어도 밤새 향기가 나고
梧桐葉下秋無聲(후통엽하추무성)
무릇밤 오동잎이 지니 가을 그림자가 없구나.
丁東玉漏飄飄西(정동유물표표서)
들시계 흐르는 소리가 서풍을 타고 불려오니
廣外霜多啼夕鳥(광외상다제석승)
밖 바깥에 서리가 내리고 저녁 벌레소리가
구슬러라,
金刀剪下機中寒(금도전하계중삼)
베를라 집인 면직을 가위로 잘라내고
玉繩夢斷錦羅空(유승몽단진라공)
옥관에서 꿈을 깨고 보니 단 휘장이 적막
하더라,
衣冠衣袂夜還宮(의관의매야환궁)
인전에 보내내고 남의 옷 지려는데
悄憶懽懽到御前(조억환환도어전)
슬픈 동진불만 아무든 꿈을 밝혀주나,
含涕寄得一封書(한퇴게득일봉서)
눈물을 머금고 편지 한 장을 써왔는데
願使玉繩還南浦(원사유승환남부)
잘재워진 내일 아침 남쪽으로 떠난다고 하
고
裁縫三度泣中庭(재봉삼도낙중정)
옷만 편지 찢겨 놓고 틀을 거느리고 갔나니
耿耿難眠到曉聲(경경난미도효성)
반박이는 은하수에 새벽빛이 밝아라,
寒衾愁夢不成眠(한암초몽부성면)
한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落葉多情隨夕風(낙엽다정수석풍)
서산에 지는 달이 병풍 안을 다정하게 엮보
고 있구나.

4. 冬(겨울)
銅鑪香灺酒初寒(동로향쇼주초삼)
불꽃기 가는 소리에 추운 겨울이 가는데

4. 동(겨울)

銅壺滴漏寒宵永(동곤적루한소영)
물시계 가는 소리에 추운 밤은 길어 가는데

月照影疎錦食(월조사영금식)	새는 향기로워라.	徹底荒蕪春南(장치고아원춘남)
휘황은 달빛 비치고 비단 이불은 차갑기만 하여라.	春山滿地手無可(춘산묘취수무가)	장막 밑의 새끼양은 봄에 마실 술에 바지라라.
宮錦影疎難離(궁야경산난독성)	봄의 산 경치를 그리면서 시인 손 호호 불고	滿園忽憶舊人(만원홀억허복인)
궁궐 안의 까마귀들이 두두대 소리에 놀라 울어지고	夢中金錦難離(몽중금경난리)	난간에 기대어 문득 변방의 남을 생각하나니
臉影難離意有(료영난리이유)	새장에 있는 양무새 새벽 서릿발 싫다 하겠지.	鐵馬金衣南渡(철마금의남도)
새벽 먼동이 터오자 다락 창가에 그림자가 어는지라네.	南舞女笑芙蓉(남난녀소상아)	참 들고 철마를 타면서 청해 물가를 달리시 겠지.
簾前彩錦難離(림전사자난리)	남쪽 이웃집 여자가 미소 지으며 하는 말이	驚沙寒雨滿江(경사한우만강)
주렴 앞에서 시내가 강가에 있는 물을 졸으니	玉容半倚紅樓(옥용반의홍루)	휘몰아치는 모래비발과 눈보라에 검은담배
玉盆半倚紅樓(옥분산의향)	넋 그리하는 마음에 예쁜 내 얼굴 반쪽이 됐다	꽃웃은 해질녘고
대아의 물에 손 담그기 켈리루에 언지 냄	고 하네.	應金春滿滿江(응금춘만만강)
	金錦難離(금경난리)	한기 나는 아내 발을 그리워하며 수면에 눈
	솔불 핀 화로는 따뜻해서 봄향 피리소리가 흐르고	물이 가득했지.

하난설현이 활동할 당시에 조선 한문학의 정철·송운 등의 가사문학이 꽃을 피웠는데, 주로 단(唐)·송(宋)의 가사문학 형식을 따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난설현의 작품은 「난설한집」으로 간행되었다.

許蘭雪軒의 生涯 年表

- 1563년 명종 18년 강릉 초당 생가에서 당대의 석학인 초당 허엽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 1570년 선조 33년, 8세 때 『관한전책목부 상량본』을 지었다.
 - 1577년 선조 10년, 15세 때 안동김씨 가문의 김성립에게 출가를 하게 된다.
 - 1580년 선조 13년, 18세 때 아버지 허엽이 삼주에서 객사했다.
 - 1582년 선조 15년, 20세 때 전 해 1579년 딸을 잃고나서 또한 아들의 희운을 잃는다. 꼭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애절하게 그린 시이다.
 - 1583년 선조 16년, 21세 때 불계 오빠 허봉이 10만강병설을 주장한 아이를 탄핵했다가 귀양을 가게 된다.
 - 1588년 선조 21년, 26세 때 불계 오빠 허봉이 금강산에서 객사한다.
 - 1589년 선조 22년,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경기도 광주 초월면 지월리 경주산에 묻히게 된다.
 - 1589년 선조 22년, 남편 김성립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남양 홍씨와 재혼한다.
 - 1590년 선조 23년, 동생 허균이 친정에 있던 난설현의 시를 모아 『난설한집』 초고를 만들고 유성룡에게 서문을 받았다.
 - 1592년 선조 25년, 남편 김성립이 임진왜란에 참가하여 전사한다.
 - 1598년 선조 31년, 허균이 경주제관 때 원경나온 명나라 오명제에게 난설현의 시 20여 편을 전해주어 이 시가 명나라에서 편찬한 『조선 사신』, 『열조시선』 등에 실렸다.
 - 1606년 선조 39년, 허균이 명나라 사신 주지반, 양유년 등에게 난설현의 시를 전해주어 『난설한집』이 명나라에서 간행되었다.
 - 1607년 선조 40년, 4월 허균이 『난설한집』을 목판본으로 출판하였다.
 - 1711년 일본에서 분다이아 지로베이에 의해 『난설한집』 간행.
- 현재 하난설현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산 언덕 안동김씨 묘역에 있다. 1989년 5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 90호로 지정되었다.

女流詩人 許蘭雪軒

본명 허초희(許超姬, 1563~1589). 호는 난설현(蘭雪軒), 자는 경빈(景樊)이다.
『난설현』이란 호는 난초의 청순함과 눈의 깨끗한 이미지를 따서 지은 것이며 경빈이란 중국위 여신선으로 알려진 범부인(樊夫人)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다

1563년(명종18)에 강릉에서 조선시대 선조 때의 문신 초당 허엽의 3남 3녀 셋째딸로 태어나 글재주가 뛰어나 8살때에 이미 『관한전책목부 상량본』을 지었으며 아름다운 용모로 뛰어난 천성으로 신종으로 알려진 당대의 석학이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과 똑같이 글을 익혔다.
큰 오라비니 허봉은 자신의 친구였으며 당대의 최고 시인이던 손곡 이 달에게 여동생 설현의 시 교육을 부탁하면서 그의 재능이 발광되고 많은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15세에 일찍이 서당 김성립에게 출가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객사를 하게 되고, 하난설현까지 두 명의 아이를 잃고 난 뒤 정신적 지주였던 오빠 허봉까지 객사하기에 이르자 하난설현은 1585년(선조

17)에 26세 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듯 시 『풍류공산산』을 지었다

碧海浸滄海 :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靑鸞倚彩鸞 :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芙蓉三九寒 : 부용꽃 스물 일곱 송이가 봄에 개이지니
紅雪月霜寒 :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27세가 되던 3.19일 아무런 연유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오늘은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으며 집안 가족들이 그의 유품집은 불교 의식에 따라 모두 불태워졌으며 그의 유해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경주산에 묻혔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가슴에 담은 꿈을 펴보지 못하고 불행한 생을 마감하였다.
그 뒤 5년 뒤에 남동생이었던 허균이 누이의 시를 모아 『하난설현』 초고를 만들었으나 하난설현의 남편 김성립이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전사하자 허균은 기회를 기다려 1598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원정 온 문인 오명제에게 시 20여 편을 주었던 것이 『조선사신』과 『열조시선』에 실리게 되었다.
1606년(선조39년) : 허균은 이 해 3월 27일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시인 주지반, 양유년 등에게 난설현의 시를 모아서 전해주어 『난설한집』은 사후 18년 뒤에 중국에서 간행되었으며 다음해 4월 허균은 난설현 집을 목판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그의 작품이 명성을 떨치게 되자 다시 1711년에는 일본에서 분다이아 지로베이에 의해 『난설한집』이 간행되었다



(주) 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괄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사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양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u@hanmail.net

安東金氏提學公派

예절연수 및 역사탐방 기사 및 소감



2014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동김씨 제향공과 풍화는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일대에서 예절연수 및 역사탐방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상님들의 숭고한 유훈과 업적을 찾아서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더욱 빛나게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상님들의 숭고 이념을 고취 함양하고, 명분이 자신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지키며 풍찬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월 21일 아침 8시,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서늘에 겨우 중간 종인 13명은 사립역에 집결하여, 정새버스를 타고 증평군으로 이동하였다. 이 동간 수도권총회장(김태선)과 인사말과 행사안내 책자, 기념 수건 등이 배부되었다. 증평군 읍내에 도착한 일행은 증평, 괴산 지역의 종친 및 재현 등 타 지역의 종친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남봉공(휘 徽; 현관 태옥)의 산소부터 참배를 시작하였다. 이어 백곡공(휘 復淵; 현관 태옥), 화은공(휘 天柱; 현관 상복) 산소에 잔을 올리고, 문화해설사를 나와 증평군청 문화재 답답 부원으로부터 백곡공 산소의 문화재적 가치, 주변 공원과 예정 및 안내관 설치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마일리로 이동한 일행은 풍목당공(휘 恒鉉), 청정공(휘 奎鼎), 승지공(휘 夏臨)의 제단에 참배(현관 응두)하고 이마 후손들에게도 참배하였다. 그리고 괴산군 사립면에 위치한 철거가는 신당으로 이동하여 읍우씨가 제공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종지 후, 증평리의 효열각을 둘러보고 학생공(휘 相赫; 현관 응두)을 참배하고 보광산으로 이동하여 김사공(휘 素; 현관 향용), 승지공(휘 龍廣; 현관 향용)의 산소를 참배하고, 풍간(휘)의 회암공(휘 師誥; 현관 현관)과 이마 후손들에게도 참배하였다. 이어 괴산군 유령리에 있는 목재공 이문진 신도비로 이동하였다. 종지이후 종친회 일행 3명이 일정을 마치고 나와 가버논 담소를 나누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근처 대강동에 위치한 승지공(휘 師誥; 현관 규원) 묘소로 이동하여 참배하고 이어 선전관공(휘 輔)과 유한공(휘 永年)을 참배를 하니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일행은 한차례 있는 대명리의 목사익의 목재공 이문진(현관 김태옥)의 묘소에 들러 참배를 하고 목재공 배비원(현관 김태옥)의 파남 김태옥(파남이)에 대해 여러 말씀을 나누고 다시 역에서 있는 관공공(휘 系; 현관 규원) 묘소로 참배를 하니 날이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을 켜야 움직일 수가 있었다. 강행군이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첫째날의 산소 참배를 일점대도 무사히 소화하였다.

저녁 8시쯤 농촌리 객실로 이동하여 괴산의 물결이 예경무대로 높은 저녁을 든 일행은 본격적인 예절연수를 받았다. 먼저 사주장수, 수도권총회장, 제향공과제향의 인사말과 친조자 명단발표가 있고, 괴산종친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향음씨가 축문 낭독, 지방 살포 및 종, 제사의 순서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살포 및 종친들이 축축을 선보여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연수 후에는 준비한 이식과 음료를 즐겨 먹었다. 다음날 일정에 대해 협의하며 1일차 일정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튿날, 기상예보대로 괴산 지역의 날씨는 맑고, 하늘은 푸르렀다. 아침식사를 늦게하는 바람에, 식사는 조금 뒤에 먹기로 하고, 근처의 취목당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식그러온 아침공기의 취목당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일행은 다시 객실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문숙공(휘 樹樨; 현관 상수) 묘소로 이동하여 참배하고, 문숙공 제실(현관 태선)을 둘러보았다. 이어 사주재공(휘 徽; 현관 향용), 안주공(휘 鑑; 현관 봉희) 산소까지 참배하고 백현농원으로 이동하였다. 백현농

원에서는 향관공(휘 應觀; 현관 규원), 영산공(휘 錫), 구암공(휘 惠甲), 아산공(휘 孝甲; 현관 상철), 찬성공(휘 仁甲; 현관 향용), 부령공(휘 時瞻; 현관 태옥) 산소까지 참배하고 종이공 신도비로 참배했다. 이후 종이공(휘 時瞻; 현관 향용)과 그의 아들을 참배하고 연천공(휘 可衍)의 영정각에 들러 연천공 영정에 참배하고, 종인사로 이동하였다. 종인사는 충무공 김시전 장군의 위패 보관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사당이며, 충항도기념물로 제 12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충무공(휘 時瞻; 현관 태옥)묘소에 참배를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구사당으로 가 문숙공(휘 樹樨)의 위패와 충무공(휘 樹勳)의 위패에 함께 참배하였다. 구사당은 문숙공과 충무공의 위패를 모신 불전지위 사당이다. 참배에 이어 칠성면 물림리에 있는 지방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36호)로 지정된 김가을 가족을 둘러보고 증은 태석씨를 만나 준비해 놓은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곳 가족은 구암당과 풍향재의 신임을 받아 시흥면 부근에 오른 향관공(휘 恒鑑 #4065;)이 명성후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반대하여 고함으로 낙향하여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건립한 건물이다. 봉부리로 이동하여 점심을 들렀다.



다. 이 자리에서 종원대 교수인 이상주 교수의 인사말이 있었다.

식사 후 서진리로 이동하여 함봉공(휘 友甲; 현관 규원)의 산소를 참배하고, 산소 아래에 있는 김승공(휘 秉衡)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그리고 인강한 산에 모셔진 안머공(휘 師誥; 현관 향용)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세력사에서세 대실(향음씨의 부친)까지 제향한 음료를 들며 안부를 물었다. 이어 소수면 수리 안공에 모셔진 참관공(휘 範)의 할아버지 영묘로 이동하여 종손이신 한씨씨가 준비한 재물을 차려 놓고 묘제를 지냈다. 다른 묘소에서는 주와 포로 참배하였는데, 한식 종손께서 주포를 준비해 주셔서 분방을 하여 초헌한 만큼 아연관 태옥 종관관 명용 독육과 질례에 향용으로 장여 묘제를 지내게 되었다. 모두가 한식 종손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종친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옥수수 두 자루를 삼고 음료수를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 시간이 촉박하여 근처의 참관공(휘 範) 후손인 서경희송조현(현관 용향)에 참배하였다. 이곳 묘원은 참관공(휘 海濤)이 5대 27위를 경점으로 모셨다. 마을로 내려가서 부자목업문화공적비를 참배하였는데 이곳은 향음씨의 아들 태규씨가 부친의 할아버지목업에 헌신한 공로로 괴산군 노인회에서 세운 공적비이다. 일행은 소수면사무소 뒤 산에 모셔진 장관공(휘 泰興)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참배를 마치고 면사무소 앞 골에서 한식 종손께서 주신 옥수수와 음료수를 맛있게 먹으며 해산식을 갖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각 지역으로 해산하였다.

초조 본 행사는 7월 말에 진행하려 하였으나, 괴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9월로 미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향공과 수도권총회(회장 김태선) 일원들은 행사를 위해 여러 번 사투리에 모도 긴밀한 회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태선 회장의 주도 하에, 사무처장관 용향씨 등의 일원들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끝에, 1박 2일간의 행사에 무탈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함께한 여러 종친을 또한 대대적인 뜻을 표시했다. 재현종중에서는 행사를 기념하여 수건을 제공하였으며, 식사를 제공한 읍두 종친, 재실과 장자리를 제공한 괴산의 농촌리 종중, 참배 후 하산길에 음료를 제공한 여러 종친과 그 가족들의 도움 역시 큰 힘이 되었다. 산소 참배시 위를 물며, 하나하나 빠지 않고 차례한 살포와, 역사적 배경을 알려준 향음 종친과 용향 종친의 수고로 자랑스런 안동김씨 조상님의 업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행사가 성공리에 끝난 뒤에 벌써부터 내년 행사의 장소와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한때도 거친 불운을 예치해 해례준 종친 여러분의 무운과 건강을 빕니다.

『기사제공 김 건희(竹溪公(金建熙))』



무관(武官)의 길, 그 500년의 발자취

—철원 안동김씨 부사공파의 역사를 만나다—

‘안동김씨역사연구회’는 지난 9월 20일~21일 1박 2일간 철원 민봉선내에서 김봉희(金鳳熙) 안동김씨대종회장을 비롯하여 강진, 대구 등 경향 각지에서 부부(夫婦) 회원을 포함한 40명의 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사공파’ 무관(武官)의 역사를 만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난 해, 사주(沙州) 김양파(金良佐) 선생의 ‘회곡동화기’의 기록을 찾아서 총합공에서 유상하였던 안동 상리파(上洛派) 탐방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급근 부사공파 철원 역사탐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영랑(榮嶺) 안산인 회장의 인사말에서 “역사를 읽은 민족에게는 미래가있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인물들을 찾아 연구하고 현양하는 사업이 안산인의 사명중 하나”라며 이번 행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봉희 대종회장은 축사할 먹담에서, “충무공의 명예로운 시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안동김군에 자랑스러운 두 분의 충무공 김

시민·김충하와 훌륭한 부훈과 업적을 이야기하였다.

2시간 30분의 긴 여정 동안, 버스내에서 이뤄진 답사 행사의 진행을 맡은 태영(泰榮) 총무는 바쁜 시간을 내어 참가하신 종인들과 찬조출신 종인들의 간담회 본선 소개와 1박 2일간의 행사일정을 소개하면서 ‘안산인’에서 제작한 부사공파의 역사가 망라된 자료집, 표제 ‘민봉선



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다”를 배포하였다. 철원에 도착해서는 충무공의 후손이신 부사공파 원회 회장과 철원원회 전교를 지낸 규장 종인의 묘역 안내로 순조로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 상세한 답사기는 다음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사재공 안산인」



충무공김시민장군 421주년 추모제향식 봉행- 충북괴산 충민사



전통 유교식으로 봉행하였다.

2014년 10월 3일 오전11시 충북 괴산군 괴산을 능춘리 소재 충민사에서 충무공김시민장군 421주년 추모제향식이 봉행되었다.

괴산군 충민사 유림(원장 우홍택) 주관하에 괴산군 유림, 군민, 안동 김씨종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날 초연관은 괴산군교육장 이규필님 아현관 현충양교 전교 박선동님 종현관에는 안동김씨문중 봉림당공파 김용두님이 현직하였으며 안동김씨 대종회에서는 추모화환을 둘러례를 갖추었다.

제향이 끝난 후 관리사에서 식사를 하면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기렸다.



2014년 開城尹公 諱七霖 享祀 盛了



안동김씨 개성윤공파(회장 이경외) 2014년 10월 10일 12일(일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293-1 묘소에서 봉행되었다.

안동김씨 대종회장 풍희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이날 향사에는 서운관정공과 재촌 회장을 비롯해 재호(文)종친과 다른 파종회 종친들께서도 참석하여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특히 사대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인호 부회장이 이날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자신이 개성윤공파를 끌었는데 자신이 개성윤공파

알게 되었다. 종인들을 찾아준 봉희 회장에 다시 한번 감사말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매년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종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10월의 초연관은 총합공 28대손인 병주 종인이 맡았으며, 아현관은 상호 서운관정공과 고문이, 종현관은 흥근 종인이 맡았다.

축관은 웅신 감사가 집례는 이경 회장이 진행하였다.

개성윤공파 종친회에서선 봉희 대종회장에게 시향 초연관을 부탁 드렸으나 대종회장께서 “여러 해 헌관을 했으니 올해는 다른 참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한사로 양보해 다른 종인들이 헌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개성윤공파 최고령인 95세의 창식 고문과 두 번째 고령인 92세의 상명 고문은 예년과 다름없이 나뉘어 건강할 모습으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종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묘역을 끝낸 종인들은 인근(7~8분 거리)에 위치한 서운관정공과 선조 묘소를 참배하였다.

서운관정공과 선조 위 효도 할아버님을 비롯해 함, 성림, 정림, 그리고 하인철현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30여 명의 종인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 자신이 “안동김씨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취 칠림 선조의 후손이라 밝힌 인호 부회장은 “얼마 전 행사장에서 봉희 대종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Essay 어머니의 행진곡

文淵公19代孫 金在漢



어머니라는 이름은 영원히 회자(膾炙)된다.

어머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흔적을 지니느라 어찌된 이 땅을 지키는 존재로 남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렇다. 이에 대한 시(詩) 한 수를 불러본다

대지산 이었다/지반이 찢어 금이 가고/새살이 크게 휘젓 거렸다/그 순간 /하느님은 사람들에서 가장/힘센 사람을 /저 지하중 아래에서/땅을 받쳐들게 하였다/아름다웠다/수 억 천년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그 땅을 밟고 살고 있다.

이 시는 사인 신달자의 '어머니의 땅,이라는 시(詩)다.

어머니는 기쁜 자리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기쁜 자리에서조차 웃은 손으로 어느 구석진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자녀들의 표현하지 못하는 구석 구석의 감정 이기까지 챙기며 자신의 마음을 보낸다. 자녀들의 무거운 인생을 마음으로 들고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내 어릴 때 집안이 무엇인가 어지럽게 돌아갈 때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때 어머니가 작심을 하던 문턱에 꼭 돌리곤 했다. 이상하게도 "있었다" 하시며 어머니가 움직이면 마음처럼 모든게 제자리에 오게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다. 무작정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못 생겨도 예쁘다고 해주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그래 다시 잘하면 된다"고 해주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만 하면 됐다"고 주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가 설거지를 어머니 손으로 해결하고 마지막 만지개질 털고 닦아 다시 정돈하는, 그래서 드디어 잘못된 자식도 감동으로 눈물의 바다를 이루어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내가 아는 내 어머니는 자랑하고 싶은 어머니였다. 한참 살 만한 사십대 초반, 남편을 여의고 칠 모르든 아들 셋을 데리고 앞날을 어떻게 살까갈 것인가 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집안 살림살이는 나 물려와 항상 의자에 나가 건달생활 하세웨일로 일한 남편에 대한 중요성도 없이 무사 귀가만 기다리는 인내로 가정을 이끌어 왔으며 혹 귀가하면 우리 가정의 기둥인 남편을 위하여 정성을 드려 좋아하는 밥상 차려 대접하는 것을 아내의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삼았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 폭풍같은 원망은 다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성이고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부유한 가정의 딸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며 자랐으나 인생살이의 첫 큰문인 초혼에 실패하고 생과부(정혼 후 예비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정혼녀를 말함)로 여자로서 후일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을 깨달은 듯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우리 삼형제에 대하여 결혼가정의 자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눈송받지 않게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재능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평생 완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인사 잘 하고, 정직하고, 말과 행동을 길어야 하며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생활화하고 남에게 주는 기쁨,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존 중은 내 것이 아니므로 받을 생각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한다. 그리하여 1946년도에 김치 시골농촌에서 서울의 중학교에 유학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어머니의 극한한 자식 사랑으로 나는 서울 유학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고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은 단 한 번 50·25정경시 인공치하(북한인민공화국)에서 둘째 형이 반공분자로 체포되었을 때 그들의 공포로 쓴 충성을 듣고 충살로 오인한 가운데 자식의 목숨을 헌신하며 또 하나 잃어버렸다고 통곡할 때였다.

그 후 친과 다름없이 자식과 가정을 위한 극한한 정성의 기도가 풀리지 아니하시고 한밤 중 고요한 가운데 잠대에 잠인수 떠다 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셨던 밤바 사달려 거동이 불가능할 때까지 시종 일만 하신 분이 내 어머니였다.

요즘 간절하게 이 나라를 떠맡고 싶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곡진(曲盡)하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가 도성적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여에서진 맞고도 싶다 그것은 왜 이리도 어려운가? 왜 이렇게 안되나? 이 일을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랴? 이 나라 국민이 한 사람은 의욕과 출다. 기대조차 안 하면 어찌나 스스로 격정이 된다. 그러나 사달한 것은 어머니같은 정신의 길잡이가 부족 앞으로 떠나라 국민이 이끌었던 한다. 또한 그런 길잡이를 따르는 국민이식도 필요 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실태를 재구만 알리고, 꼬이고, 다시 꼬이고 이제 물려와야 하고 바라보다 더 열거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다. 그러나 자식이 가정의 변화와 함께 전진 무거운 하늘보다 높다. 대결과 이기심의 여지없이 새로운 힘 한방에 일어나는 모습(새날)시대에는 살아남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은 모든 어머니같은 모성적 사회로 서로 어루만져주고 큰 목표를 향해 손에 손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향사(享祀)의 의미(意味)

김상근

제물을 진설함에 바쳐어 올려놓고
축복도 밝히고



연두색 도포 정갈하게 입고
유전도 쓰고
헌작(獻爵)
배(拜) 올리며

생각은 내일의 복잡한 삶에 묶어 놓는다.
싸이버 공간에서 허우적대며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
선조님들을
이해 하라나

내내에도 또
똑같이 절을 올리겠지?....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들 감사드립니다. (2014.08.01 ~ 09.30)

○ 평생회비

· 20만원 : (鄭대환(화성), (翼)응식(서울) (계: 40만원)

○ 찬조금

· 10만원 : 손준성친회

· 5만원 : (翼)홍예(인천), 근회(부산), 윤대(태백), 태인(경주), (翼)대권(천안)

· 3만원 : (翼)재환(서울), (正)규성(서울)

· 2만원 : (大)성무(보성) (계: 43만원)

○ 통상회비

· 10만원 : (翼)대식(충성), 원호(광명시)

· 5만원 : (文)영은(광주), (鄭)석진(서산)

· 3만원 : (翼)홍식(제천), 원식(서울), 양식(광주광역시), (鄭)희수(서울), (文)상진(서울), (鄭)영수(남양주), (大)대균(서울)

· 2만원 : (翼)수종(서울), 학희(보은), 윤한(논산), 정희(천안), (安)국현(남양주), 춘희, 경희(파주), 우현, 창현, 주현(서울), 용현, 성현,

정현(고양시), 철희(군포), 선호(하남), (鄭)재국(대전), 재선,

재택(청주), 선진(통주), (提)호식(청주), 익수(제주도),

(鄭)재국(광주), (鄭)상식(광명), 병만(서울), (鄭)일덕(창원)

· 1만원 : (翼)영목(춘천)

(계: 102만원)

연재

2014년 안산연 하계답사 ①

안산연(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25일 익원공과 대서헌공(휘 誠童)종증과 함여공(휘 夢 訥)종증의 시흥·안산·수원지역 선영을 비롯해 강화명 성상과 이익 선생의 묘소 등을 답사하였습니다. 이 글은 답사 보고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 일시 : 2014년 5월 25일(일)
- 장소 : 시흥·안산·수원지역 익원공과 대서헌공(휘 誠童)종증과 함여공(휘 夢 訥)종증 선영, 강화명 성상 묘역, 성호 이익 선생 묘소 및 기념관, 안산이씨 이숙빈 선생 묘역
- 참석 : 34명(無酬, 경침 생략)
- ◇ 서울·수도권(17명) : 봉화(대종회장), 영곡(전 문운공과 회장), 재관(전 문영공과 회장), 英根(이, 植根), 용대(문), 대진(이, 敬南), 영환(안산연 회장), 상석, 윤만, 성진, 우희, 은희, 발흥, 태우, 태영(안산연 부회장), 윤식, 용주
- ◇ 수원 참의공종중(13명) : 재용(在雍 : 전 익원공과 회장), 재영(在永), 재관(在權), 영희(永熙), 덕희(德熙), 진희(珍熙), 태용(泰龍), 수선(洙先), 태철(泰澈), 태홍(泰弘), 춘식(春植), 순식(淳植), 경식(敬植)
- ◇ 안산 이숙빈종중(1명) : 형식(亨植)
- ◇ 관찰사공(휘 誠童)종증(3명) : 두식(斗植) 회장 등 3명

2014년 5월 25일(일요일) 안산연 2/4분기 정기모임 행사로 시흥·안산·수원지역 익원공과 회장, 강화명 성상과 성호 이익 선생 등 역사인물들을 찾아가는 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08:20분경 약속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 도착하니 하늘이 잔뜩 짙어진 상태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봉화 대종회장을 비롯한 문종 어르신들께서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08:30분경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해 08:40분 답사지역으로 출발합니다. 08:50분경 답사지역으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대령 안산연 부회장이 행사 개요 및 일정을 설명하고, 영환 안산연 회장이 인사말에서 답사 취지와 더불어 참석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이어 봉화 대종회장께서는 안산연에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데 대해 축하하고, 우리 문종 발원에 안산연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09:20분경 시흥의 대서헌공(휘 誠童)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절기도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어 짙푸른 녹음이 무거졌습니다.

대서헌공종증의 발원지, 대서헌공(휘 誠童) 묘소

대서헌공 묘소에는 수원 참의공종증과 안산 이숙빈종증 종인들께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재용 관찰사공종증 회장께서 대종회장 등 문종 원로분들과 안산연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서헌공 묘소는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50-4번지로 성열 만 위쪽에 쌍분으로 모셔져 있는데, 묘비 2기(신·주 각 1기)를 비롯해 문신식 2쌍(신·주 각 1쌍), 장명등, 상석 등 석물이 조성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묘비와 문신식 각 1쌍은 2000년 뒤에 비문을 개수하면서 종증에서 새로 세운 것입니다. 옛 묘갈 옆(기념)에는 종화가 진경대 속히 탁본을 떠서 비문을 보정할 필요성이 커 보였습니다. 대서헌공 묘갈은 한성부윤 정사흥(鄭士興) 선생이 짓고, 상경진사 김종수(金從壽) 선생이 글씨를 썼는데, 정사흥 선

생 문집에 대서헌공 묘갈문이 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묘갈 유기가 유일합니다.

대서헌공은 1452년(문종 2년) 문정공(휘 稷)의 넷째 아드님이자 영의정을 역임한 충장공(忠長公) 정창손(鄭昌孫) 선생의 외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대서헌공의 자(字)는 명보(明輔), 호(號)는 제계(陂溪)입니다. 문음(門蔭)에 의해 외급부 도사로 관직에 나아가 사옹원(司饔院) 주부(主簿)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순진한 일 1492년(성종 23년) 적성현령으로 재임 중 갑과 3등인 탐하공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나 문정공의 뒤를 이어 대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함으로써 문정공 후손 가운데서 무려 10대에 걸쳐 한 대도 빠지지 않고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정무후한 기록을 세워 가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서헌공은 부원부사로 승진하신 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한편 조정에 자책이 보고되어 가신대부로 풀계가 높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인품과 치책 및 선정으로 조종 대신들과 선비로부터 장자 나라의 재신감이라는 크나큰 기대를 모았으나, 1495년(연산군 2년) 향년 44세로 짧은 생애를 마쳤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성현(成獻) 선생이 지은 용재총화에는 대서헌공께서는 키가 아홉 자요, 성품이 청학하고 신중하다고 그 풍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문 밖 연지(鰲池) 인근에 사신 대서헌공께서는 풍일토록 온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조세를 독촉하지 않아 백성들이 부모처럼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위 진주강씨는 문장공(文次公) 강화명(敬南) 선생의 딸이십니다. 장인 강화명 선생 묘소는 대서헌공 묘소 오른쪽 진주강씨 묘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참해 일행이 대서헌공제 인사를 드리는 사이 꾸물거리던 하늘에서 마침내 부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행은 서둘러 바로 아래에 모신 부호군공(휘 濂) 묘소와 손자(휘 夢訥) 묘소로 옮겨 인사를 드립니다. 대서헌공의 둘째 아드님이신 부호군공은 자(字)가 청지(淸之)이며, 성품이 활달하신 까닭이신 충의위(忠義衛)에 들어가 어모정공(禦侮將軍) 평종위부주사(行忠義副將軍)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대서헌공의 풍채와 성품을 이어받았기까 커어나고 도량이 넓어 장자(長者)의 풍모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향년 66세인 1550년(명종 5년)에 돌아가셨는데, 손자 효헌공(李獻公 : 휘 璣)의 권위로 가신대부(嘉善大夫) 병참조판(兵曹判官) 겸 풍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습니다. 배위 단양유씨는 상경 사대(成均司諫) 우유(禹維) 선생의 딸이며, 합장묘로 모셨습니다.

부호군공께서는 휘 연필(彦謨), 연부(彦壽), 연함(彦訥), 연함(彦謨), 연상(彦衡) 등 아드님 다섯 분을 두셨는데, 큰아드님(휘 夢訥) 묘소가 부호군공 바로 아래 모셔져 있습니다. 묘갈문은 갑각성(姜克成) 선생이 짓고, 여성군(鄭城君) 송인(宋興) 선생이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나 부호군공 묘갈문 역시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대, 갑각성 선생 문집에 묘갈문이 전하지 않습니다.

참고공 문중에 전해지는 문시에 의하면 휘 연필 공께서 아드님을 두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자 아우 참의공(휘 연함)께서 홀로 떠난 형수님(휘 연함의 배위)을 자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외적으로 나날이 때우는 형님의 신주를 모시고 다닐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형의공문종에서 800년간 휘 연필 공 묘소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나 그 정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안산 이숙빈종증의 첨정공(휘 璣)과 참성공(휘 1誠童) 묘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 분은 대서헌공의 셋째 아드님 관찰사공(휘 연)의 손자와 증손자입니다. 제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서헌공(휘 誠童) → 3자 관찰사공(휘 璣) → 3자 승지공(휘 百翰) → 첨정공(휘 璣) → 1자 참성공(휘 1誠童)

승지공(휘 百翰)은 경진보(庚辰茂) 강행에 지대한 공을 세운신 관찰사공(휘 德範)의 아우님입니다. 잠시 묘역에 둘러 인사를 드리고 강화명 선생 묘역으로 이동합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대서헌공 묘소. 배위 진주강씨의 쌍분으로 모셔져 있다.



▲ 대서헌공 묘역을 설명하는 대령 회장. 비로 앞 이씨표지 연꽃이울은 이곳 지경에서 유래하였다.



▲ 대서헌공 묘비



▲ 영랑 회장의 탁본

* 慶州 崇恩殿 參記 *

경주 숭혜전을 다녀오다

아~! 경주 숭혜전(崇惠殿). 나의 DNA 원조! 분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뻐뻐.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16 번지, 신라 최후의 김씨 임금인 13대 미추왕,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30대 분무왕, 그리고 신라 마지막 임금인 56대 경순왕의 위패와 어진(영정)을 모신 사당! 이곳을 총괄하는 (사)신라 숭혜전을 보존회가 있고 여기에 삼십사 자력으로 1억 2백만 원에 걸쳐 지어졌다. 안동김씨 총영관공후손으로는 처음이다. 안동김씨대종회에 감사드린다. 숭혜전(崇惠殿)은 처음 일성에 사당(廟宇)을 짓고 경순왕의 영정을 모셔 유역을 기리며 제향을 올려오던 중 1392년 임란에 불타 버려 위패만 모시고 제향을 올렸다.

그후 안동 5년(1627)에 관찰사 김시암이 금학산 아래 동진촌에 새로 사당을 지어 동천묘(東川廟)라 하고 위패를 모셔왔다. 경종 3년(1723) 어룡(魚龍)이라 신액을 받았으며 정조 18년(1794) 지금 자리로 옮겨 황남묘(皇南廟)으로 다시 고쳐 불려 왔다. 그후 고종제(1897,1898) 미추왕과 분무왕의 위패도 모시게 되었고, 다시 증축하여 전호(殿廡)도 숭혜전(崇惠殿)으로 신액 받았으며 영정(影軸)은 신, 구본과 함께 동백 갑실에 봉안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경순왕 유해비, 경순왕 어진(문화재)과 석조불들도 함께 진한다.

2014년 9월 22일 오후 7시 경주 신라회관에서는 신라숭혜전보존회 이사회가 열렸다.

김진국 총무는 이제부터 안동김씨에서도 이 보존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자세히 소개한다.

축스텝도 완충하고 열광스러웠다.

형상대가 바로 보이는 일관 음식상임에도 도포에 유건을 쓴 여러 전, 능행복(이사 포함)모습이 이채롭다. 회화와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숭혜전으로 옮겼다.

초가를 밤 숭혜전은 내일 봉행되는 4대왕 능향제 준비로 내달길이 불이 환하다. 원문당 이란 방을 열어보니 왕릉제주 준비에 바쁜 손길이 있었다.

숭혜전 제수필과 이사를 맡장 한국역사문화유식학교장 차운정박사님 이다. 일한 유가의 제례음식과는 달리 종류와 양, 높이며 퍼는 방법이 판이하게 달랐다.

이곳 숭혜전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동문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작은 비각 출입문을 들어서면 유각으로 된 건물이 바로 경순대왕 유해비자이다. 비각안 유해비 전면 중화전에는 김시암(金時諱)이란 글자가 너무나 또렷이 새겨져 있어 자랑스러웠다.

숭혜전을 찾았다는 종안들은 하마할아버지의 이력을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숭혜전 안내관을 지나 북편으로 돌면, 숭혜문이란 3층 극이 그림자 외3분이 나타난다. 마담에 들어서면 우측에는 경모재 3간이며 청룡실이다.

서편에 영락재 4칸이 나타난다. 맨 안쪽부터 현관실 대축집례실, 그다음이 신라숭혜전보존회 사무실이다. 북쪽으로 보면 정면에 신문(神門)이란 3칸인 3대극 3수문이 나타난다.

정숙이란 글자 아래 동편문을 들어서면 우측 동편에 3칸 전사청이고 좌측 서편에 3칸이 제기고이다. 이어 북편에 마지막 건물인 숭혜전 정면5칸, 측면3칸 위용의 건물이 나타난다.

여기에 서면부터 미추왕 문무왕 경순왕 3분의 지위가 보여져 있다. 여기서 지위는 왕의 위패를 말한다. 경순왕 지위 동편방에 경순대왕 어진,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다시 완전히 숭혜전 바깥으로 나와서 추사재쪽으로 돌아가본다.

서편으로 대문을 들어서면 서편 안쪽에 8칸 곡형 기와집이 추사재이며 다시 안으로 들어서면 4칸 관리건물이 나타나고 오른쪽부터 방, 대문,방2칸이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원관이 4칸건물이고 안쪽부터 현관실 두칸 4칸고 창고이다.

다시 북쪽 정면이 함은당(涵雲堂)으로 가관실(假官室) 재관실(齋官室) 4칸이 있다.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화상실 2칸이 있다. 뒤에 도충 3그루가 있고 동편 담장머리가 숭혜전이다. 숭혜전과 추사재사이에는 곡각담장으로 분리되고 연결도 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이 숭혜전 전체 구조를 찬찬히 살펴 본 후 대축집례실에서 단위를 잡고 일어났다.

9월23일 화요일 새벽 5시, 이제 곧 사육행사가 시작될 모양이다.

사육 행사는 능향제 새벽에 전 앞에서 의궤정제하고 모든 헌관을 측문에 가져 보고하는 행사이다. 분경원 헌관은 미추왕릉 초헌관 김병진 어진 김진달이며 종헌관 김진서(미추왕릉참봉)와함상 능행봉이 종헌관을 맡는다.

내물왕릉 초헌관 김영재 어헌관 김지제 종헌관 김택일,선덕여왕릉 초헌관 이차의 어헌관 홍정일 종헌관 정경애, 무열왕릉 헌관 초헌관 김성남, 아헌관 김경래, 종헌관 김병기이며 특이한 것은 선덕여왕릉 헌관은 여성이었다. 모든 헌관 망기는 한달전에 인원이나 우편으로 보낸다. 여기서 김진국 총무(경주김씨)의 말을 들어본다.

모든 격식은 백인백색 다르고 신라, 고려는 불교,조선은 성리학으로 다르고, 고려때는 참봉제도, 조선 경종 수호교, 조선 인조 참봉 제도로 변해왔다 진한다. 그리고 진참봉(參奉)은 숭혜전과 계림세묘(鷄林世廟)를 매일 봉심(奉心)하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각 4절을 관리하는 능參奉이 지기가 많은 능에서 처음 모친 올리고 숭혜전에 6시에 모여 함께 숭혜전과 계림세묘에 삭발제(朔發禮)를 올리고 있다.

계림세묘(鷄林世廟) : 대보궁(大報宮) : 앞지와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며 숭혜전은 진참봉 1본과 능행봉 10인이 26 왕릉을 관리하고 있다.

제례(祭禮)에는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올리는 향제(享祭)와 5월에 올리는 순회(巡幸) 차례(祭禮)와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삭발제(朔發禮)가 있다.

향제(享祭)와 차례(祭禮)
1. 춘향제(春享祭) : 5 왕릉 (법흥, 진평, 문무, 경덕, 원성, 흥덕, 신무왕릉)
2. 추향제(秋享祭) : 5 왕릉 (미추, 내물, 무열, 선덕, 경순왕릉)
3. 순회(巡幸) 차례(祭禮) : 14 왕릉을 5월에 향제(享祭)진흥, 진지, 진덕, 신문, 초상, 성덕, 헌덕, 회경, 민애, 문성, 헌안, 헌강, 정강, 효공왕릉) 뿐, 가평로 각 殿에서 봉행하는 헌제(享祭)와 초하루, 보름에 봉행하는 삭발제(朔發禮)를 향행(享行)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왕릉(王陵) 참배(參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제례악(祭禮樂)을 복원, 향사시 조선의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처럼 숭혜전, 순덕전과 힘을 모아 '신라의 제례악'을 자체에서 준비 중이다 한다.

사육행사를 마치고 아침 밥상을 대한 후 새벽 춘분인 숭혜전내에서 봉행하는 춘헌에 안동김씨문중에서도 많은 참석을 바라린다. 왕릉 한위를 안강히 많이 능향을 주관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금 강릉김씨에서는 무열왕릉을 봉상을 하고 있다..... 이제 따뜻한 배움을 뒤로하고 오늘 도리의곡과 만취한 김사임선조와 후산사 시험에 참가하러 아쉬운 발걸음을 뒀다. 글

『기사재공 : 김정호(鎭行, 都, 사촌말을 겨루)』

